

무료노인복지시설 '복림촌' 에 오세요



복림촌 원장 일우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새로 건립된 복림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 대승사 설립, 19일 입주자 접수 정부 지원금 없이 자원봉사자 운영 65세이상 40여명 독거 할머니 우선

'불교복지' 부문에 있어 불모지와 다름 없는 남도 땅 순천에 무료노인복지시설 '복림촌(福林村. www.brorok.com)'이 건립되어 함께 생활할 식구맞이에 들어갔다.

복림촌은 송광사 순천 포교당 대승사(주지 일우 스님)가 건립한 복지시설로 지난 19일 12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입주자 접수에

들어들었다. 복림촌이 주목받는 것은 정부나 지방 단체로부터 일체의 지원금없이 순수하게 사찰과 신도들이 사재를 털어 건립하고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한다는데 있다. 무료로 운영되는 복림촌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여생을 부처님 품안에서 넉넉하게 생활하는 '부처님 집'이다.

복림촌이 자리한 곳은 순천 상사면 운동산 중턱. 지난달 신축건물 준공검사를 마친 복림촌에는 총 3500평 부지에 지장전, 생활관, 종무소 등 3개의 건물이 들어섰다. 지장전은 기도 정진할 수 있는 법당이며 요사채적인 생활관은 4명씩 기거하는 방사와 물리치료실, 교육실, 목욕탕, 식당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약왕실'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혈액정제기와 척추교정기, 찜질기 등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구가 갖춰져 있다.

복림촌 건립의 주역은 3년 전 대승사 주지로 부임한 일우 스님.

스님은 불교의 사회화를 주장하며 매년 경노잔치를 펼치다 단발성 행사보다 영구적인 복지사업을 위해 복림촌을 건

립했다. 사세가 약한 도심 포교당 대승사가 무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지만 스님의 뜻을 받들어 사부대중이 하나로 뭉쳤다. 지난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맸고 마침내 불자들의 힘으로 복림촌 불사를 해낸 것이다.

4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복림촌 입소자는 우선 '65세 이상 독거 할머니'로 정했다. 특히 자식이 있어도 보호 불가능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시설이 확충되면 할아버지도 받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본격적인 복림촌 입주에 앞서 대승사 대승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신도회(회장 여련화)는 향후 복림촌 운영비 마련을 위해 후원회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원봉사팀인 보현회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복림촌 식구들의 손발이 되기 위한 물리치료, 목욕, 세탁, 청소, 미용 등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입주 및 후원 문의 : 061-745-0828 (농협 615010-51-053100 예금주: 복림촌)

순천=이준엽 기자



"신심,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대전 삼문사 김규철 신도회장



대전 삼문사 김규철 신도회장(오른쪽)이 광수사 박정웅 신도회 부회장과 천태종 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미아 찾기 운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로는 유성구 계산동에 자리 잡고 있는 천태종 광수사가 꼽힌다. 정기법회 때면 1천여 신도들로 법당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신도들의 신행 열의도 대단하다. 웬만한 수행력과 인품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찰의 신도회장직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신도회장을 맡을 수 없다. 광수사 신도회장을 두 번 연임한 김 규사는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94년 삼문사 불사를 할 때 3년간 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매달렸었는데, 그 인연 때문에 다시 삼문사로 오게 됐다 불났다." 김 규사는 지금도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삼문사 법당에서 기도를 하며 수행정진하고 있다. 삼문사와 인연을 맺었던 27년 전부터.

"몸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자리죠, 신도회장이라는 것이. 힘을 때도 있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한명우 기자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규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규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용주사, 태안3지구 개발 중단 촉구

"호 문화 단절시키는 처사" 환경위 보존방안 마련 주장

화성 용주사 환경위원회(위원장 성직, 용주사 재무국장)는 3월 22일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3지구 택지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용주사 환경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1998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적 제206호인 용건통과 국보 제120호 용주사 범종을 비롯한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문화재를 상당수 소각하고 있는 용주사 사이를 가로지르는 관동도로 개설과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호 문화의 전통과 역사를 단절시켜겠다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환경위원회는 택지개발 사업 즉각 철회와 전통문화 보존 방안 모색을 주장했다. 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견서를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경기도청에 전달했다.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무 스님(용주

사 교무국장)은 "문화유산과 환경 파괴 촉구를 위한 법회를 3월 31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봉행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교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광주 해룡사 교도소 위문공연

지역가수 재소자 한마당

광주 무등산 해룡사(주지 해우 스님)는 3월 24일 광주 교도소 강당에서 재소자 위문공연을 봉행했다.

광주교도소 재소자 400여명이 참가한 이날 법회에서 해우 스님(미타종 부주지)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 말씀은 구구절절 '나를 낮추고 나보다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며 "집안력 강, 억울한 심정은 오늘 공연을 통해 모두 내려놓고 마음공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부 법회에 이어 2부 공연에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출연해 재소자들과 한마당 어울림시간을 가졌다. 이준엽 기자

나주 불회사 일주문 낙성 불국원 착공식 첫 시삽

나주 불회사 일주문 낙성 불국원 착공식 첫 시삽



새로 건립된 불회사 일주문

나주 불회사 일주문 낙성 및 불국원 착공식이 22일 불회사 경내에서 봉행됐다. 이날 낙성식에는 백양사 두백 스님, 나주 사암연 회장 해인 스님 등 지역스님과 배기운, 정동재 국회의원, 신정훈 나주시장, 이길선 나주 시의장 등 지역기관장, 재가신도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낙성식에서 불회사 주지 정영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주문은 차별없는 부처님세계에 들어가는 문으로 세상사 고통과 갈등으로 지친 이들을 이문을 통해 들어와 편안히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주문 낙성에 이어 참석자들은 경내 옛 암자터에서 불국원 착공식을 갖고 불회사 불국원은 70평 규모의 무의탁

노인 수행도량으로 금년 가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선암사 선맥 7선승 영정 3월20일 조사당 봉안

선암사 선맥 7선승 영정 3월20일 조사당 봉안



전법조사 7위 선승 영정 봉안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식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중국 선종의 초조 보리 달마 스님과 중국 선종의 법맥을 한국으로 옮겨온 태고 보우 스님 등 한국불교와 간화선에 큰 영향을 미친 일곱 선승의 영정이 순천 선암사 조사당에 3월 20일 봉안됐다.

선암사 조사당에 봉안된 일곱 명의 선승은 보리 달마 스님(?~535)을 비롯해 대강 혜능(638~713), 임제 의현(?~867), 양기 방회(992~1149), 석우 정공(1272~1352), 태고 보우(1301~1382), 침광 현변(?~1684) 스님 등이다.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은 "이런 불사를 통해 태고종의 전통이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한국불교해동종 창종 6주년 축하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나갈 굳은 의지와 수행의 약속으로 한국불교해동종 창종 6주년을 맞았습니다. 더욱더 정진하는 한국해동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로원장 도운	총무원장 해우	종회의장 대법	대법관 정관
사서실장 보각	포교원장 성재	종회부의장 도일	도일 도일
사정부장 천강	교육부장 법현	총무국장 자은	자은 승월
총무부장 정일	사회부장 지원	교육국장 해월	해월 화도
재무부장 도봉	포교부장 도월	총무부의장 화도	

종도일동 인사 말씀

3월26일 충주이화예식장에서 봉행된 6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하여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국불교해동종 총무원 043-853-2855

대도근본 주주의식의 율선선이 하나로 윤달드는 진대양 혈단법의 초역력, 진인 경신도통 대법회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조사가 서쪽으로 온 큰 뜻은?
不立文字 見性成佛에 있으며
達摩西來一字無 全憑心印用工夫
若向紙上尋佛法 筆沾尖刺洞庭湖
千經萬典不如心 明人心中師一點
● 결과자연성 結果自然成

동양 미술 대전 특선 및 동경 국제 서화대전 은대상 당선작품
비밀 문화예술 중국 일본 한국 문화상 수상 작품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만하십니까?
- 만병의 근원인 비만증과 질병을 이기는 기도에 입문하시겠습니까?
- 지구촌 종말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지대변으로 각종 재해, 재난과 질병으로 인명피해는 물론 온로도락이 왜 떨어지고 있는가! 그 해는 어디로 가십니까. 귀하는 인류의 스승이 되고 싶으십니까.

본 달마상에서는 상서로운 기가 나오고 달마상의 눈이 보이기를 따라다니는 신술 귀물한 달마상으로써 악몽에 시달리거나 각종 파종유나 쥐, 고양이, 비둘기 등이 집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과 세대의 법도 수백 처단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개업, 전학, 고시 등 일체 미정을 소멸할 수 있는 달마도상을 모셔 소원성취하시고 진정한 종교의 근본 진리를 통하여 만인을 구하고 깨닫는 민족의 열과 종교의 근본 혼을 찾아 지구촌 이그리진 법도를 바로 세워 만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달마상에 입문하시고 본 종단에서는 복지사의 인연을 맺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어 평생 동반자 되시기 바랍니다.

귀! 명당비법과 신비의 동양철학 최진기 특강 심

영되자 초보자 및 철학에 종사하는 지도자 및 심리학자, 심리학자전문으로 미래의 사명자 및 달마도법을 전수 받는 지는 동참을 바랍니다.

◆ 신비의 진태인은 남을 재앙하고 예언자 도통자들이 남몰래 조장하여 비법을 발휘하였던 비전이며, 영기를 다루거나 말문이 열리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들은 평생 재복과 출세 관운, 남을 재도하는 비밀정암.

[진태인 구입처 : 전화 02821-6622, 016-239-3110]

제 83회 도통군자들에 천장지비의 비법이 감신년 윤2월4월 21日子시와 22日(양4월10,11日)오시에 다시없는 해인도법 갖대물 얻어 천안통 타심통 권리통에 도전하시어 신비의 초능력의 갖대물 얻어 지구촌의 이그리진 법도와 종교의 열과 혼을 바로 세워 종교의 병육신병 마음의병 정신의병 감신의병을 제도 할 수 있는 심이식의 대도통군자 영통능력자 되소서 하늘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것거리다가 허공망망이로 한대맞고 태산같은 병마와 등타 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인 척 하면 하늘이 그냥 무시하겠습니까. 새천년 미륵 달마도법의 요즘의 달마법도시대는 팔조신장이 지구촌을 샅샅이 인과법으로 중음신과 달마(수마, 인마, 병마)에 극성으로 병명도 없이 우환, 질병, 각종 암의 고통으로 곱살 단명 중풍에 시달리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세시대 새종교 옹조달마 진인도통군자들은 태산같은 중병의 삼독을 벗고 앉아서 십년할 공부물 단 한번의 경신입문으로 말문과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통하여 건강수명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초능력으로 만병을 다스릴 수 있는 진인경신도통에 입문하여 소원성취하시고 인류 스승되소서. 진사성인출, 오미당 당당의 비밀정암과 모든종교가 하나로 되는 윤달 진인 경신 진강 도통비법에 동참하시어 건강 수명 장수 하시고 도통군자 인류스승 도인 되소서.

동참하시는 분은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는 지면이 선덕에 덕은 인연 공덕으로 초능력을 받아 신연 도인 생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 입제 : 양 4월 10일 토요일(해시) 음. 윤 2월 21일
- 해제 : 양 4월 11일 일요일(해시) 음. 윤 2월 22일 [선착순]
- 동원금: 1박 2일 5만원, 참석제금 농협 029-01-167866
- 하나은행 157-015402-00108 광태일(한영) FAX(02)821-7768
- 02)821-6622 / 821-7767-8 / 016)239-3110

1호선 노랑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일반버스 85, 25, 105, 33-1, 26, 303, 142, 26-3, 102번모자일고개 하차.

**웅조미륵달마 진인 경신 도통회장
세계불교 달마중 중 본산 교육원 달마선원장**